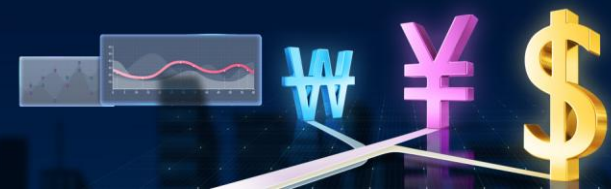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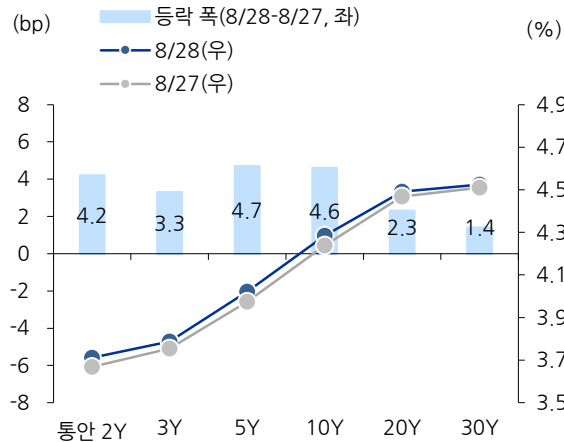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RA 차영후_02)368-6138_yhcha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8/2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788%	3.3	-6.6
	한국 국고채 10년물	4.284%	4.6	-9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bp)	49.6	48.3	52.2
해외 채권	3년 국채 선물(KTB)	103.34	-17.0	21.0
	10년 국채 선물(LKTB)	105.75	-58.0	64.0
	미국채 2년물	4.346%	11.3	10.9
	미국채 10년물	4.721%	4.4	-1.3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bp)	37.5	44.4	49.7
	독일국채 10년물	3.291%	2.8	2.0
	호주국채 10년물	5.080%	0.9	5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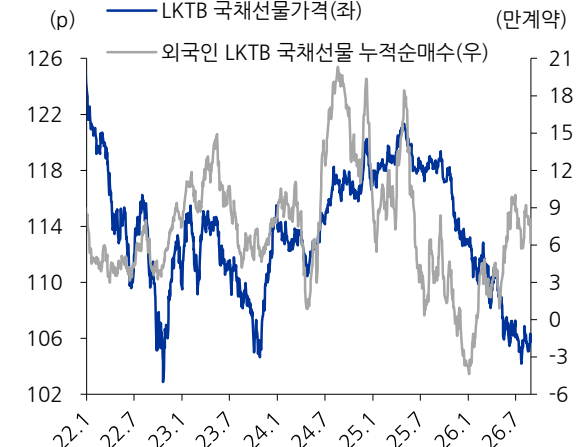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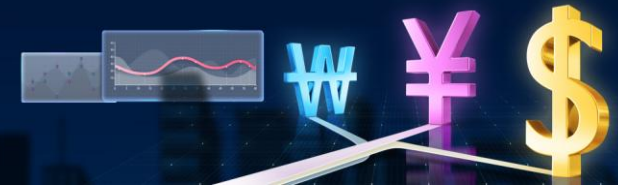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 영향.
- 금통위 인상 후 불확실성 해소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당일 금리 하락이 컸던 것에 대한 되돌림으로 금리 상승 출발. 간밤 국제유가 상승 및 미국 금리 상승도 영향.
- 전일 장 마감 후 공개된 국채발행계획이 PD 간담회 당시 언급했던 것과 유사했다는 해석으로 영향력은 제한.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경계심 있는 가운데,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세 확대되며 금리 상승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베어 플래트닝 마감. 잭슨홀 연설 공개 후 단기금리 급등.
- 워시 의장, 물가목표제가 PCE 기준 2%인 것은 고정이며 현재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을 인정. 지금 금융환경이 긴축적이지 않고, 미국 경제가 강하며 향후 기조적으로 물가가 목표치로 떨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할 일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매파적 시그널 확인.
- 7월 FOMC 때에 비해 보다 분명하고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평가되면서 단기금리 위주 상승폭 확대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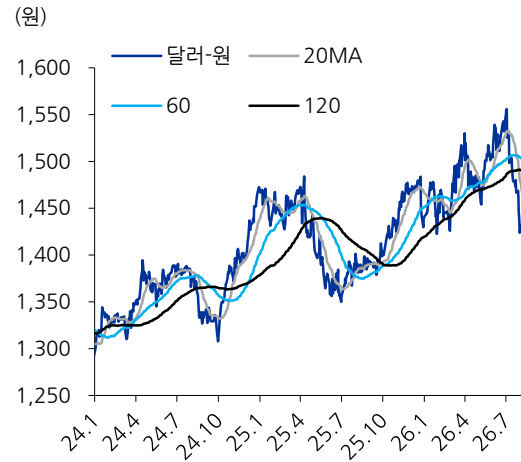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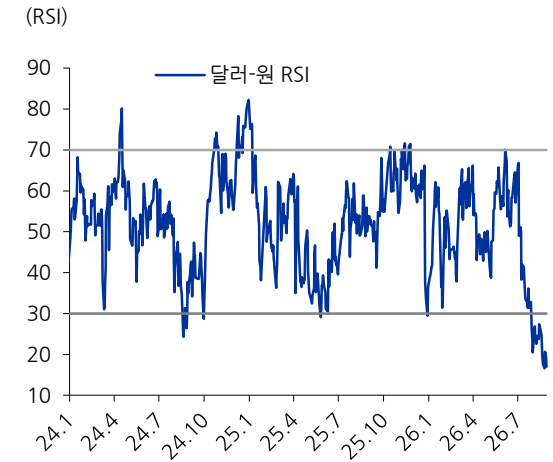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	8/28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72.50	-0.6%	-1.0%	-4.6%
	달러지수	99.67	0.5%	0.8%	1.4%
	달러/유로	1.16	-0.6%	-0.8%	-1.4%
	위안/달러(역외)	6.73	0.2%	0.1%	-3.6%
	엔/달러	160.10	0.5%	0.7%	2.2%
	달러/파운드	1.35	-0.4%	-0.8%	0.5%
	헤알/달러	5.21	0.9%	1.3%	-5.6%
상품	WTI 근월물(\$)	83.40	-0.2%	-4.2%	45.2%
	금 현물(\$)	4,454.62	-3.1%	-3.2%	3.1%
	비트코인(\$)	79,089	-1.0%	1.4%	-10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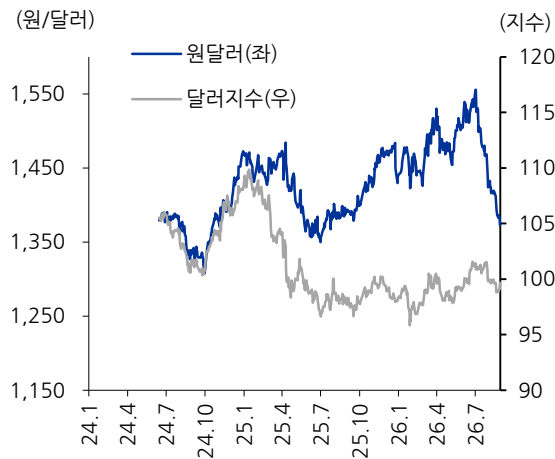
달러 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 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 우위로 -8.40원 하락한 1,372.50원 마감(야간 1,379.50원).
- 삼성전자 분기배당 역송금 수요와 워시 연준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둔 경계감에도 네고물량이 꾸준히 출회되며 달러-원 하방 압력이 높았음.
- 원달러 환율은 반도체 대기업의 주주환원 등 기대에 더해 금통위 백투백 인상 등 영향으로 주간 -14원 하락.
- 수출기업 환전이 원화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달러-원 단기 낙폭 확대(7/2일 이후 -180원)에 따른 저가매수, 잭슨홀 심포지엄 이후 높아진 9월 연준 인상 가능성 등 고려할 때 원화 강세는 서서히 완화될 가능성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인덱스는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급등(DXY +0.5%).
-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워시 의장은 기초적 인플레이션이 2% 목표를 향해 의미 있게 개선됐다는 확신이 부족하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.
- 이후 시장이 반영하는 연준 9월 인상 가능성은 60% 수준까지 상승했고, 美 국채금리는 단기물 중심 급등하며(2년물: +11.3bp, 10년물: +4.4bp) 달러 상승 견인.
- 워시 의장은 물가 목표를 연준의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면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시장에 마냥 맡기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줌. 이는 달러 신뢰성에 긍정적.